

2023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장애예술 교육 매개자 과정: 이 그림은 무엇인가요?
글쓰기 결과집



고수형
김지연
문해주
박선화
이다영
이보은
임다슬
정양숙
허란

기획·제작: 밝은방 (김인경, 김효나)

들어가며

흔히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인의 창작물은 ‘알 수 없는 암호’ 또는 ‘쓸모없는 낙서’, 더 나아가 ‘장애의 증상’ 정도로 취급되어 버려지고, 이들의 창작행위는 금지되거나 외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고유의 방향성이 변질되기 십상이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이들의 고유한 시각적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창작 사례 및 창작매개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제안하였으며,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발달장애 창작자들과의 만남 및 실제 작업물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매개자로서 자신만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생성해보았습니다.

언어를 생성한다는 것, 제3자의 언어가 아닌 자신만의 언어로 글을 쓴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 자신만의 시선을 갖는 일, 구체적인 관점을 갖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자폐적’이라고만 쉽게 해석되고 끝나버리는 누군가의 창작물 또는 창작행위에 대해서, 그러나 매개자로서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어떤 부분과 성질에 대해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일, 보편적인 공감과 설득을 얻어낼 수 있는 언어를 구축하는 일은 타인의 창작을 사회와 매개하고자 하는 이에게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총 8회차 이루어진 본 과정에서 매개자로서 자신만의 언어와 관점을 만드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글쓰기 작업을 매 회차 마다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써야할지 낯설어하거나 자신이 관찰한 것만을 단순히 나열했던 참여자들은 점점 자신의 내부에 있던 기억이나 생각을 연결시켜 자신만의 시선과 관점을 만들어나갔고, 동시에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예술’에 대한 관점과 생각을 돌아보고, 수정하거나, 확장시켰습니다.

2023년 9월 2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의 <장애예술 교육 매개자 과정: 이 그림은 무엇인가요?>에 참여했던 고수형, 김지연, 문해주, 박선화, 이다영, 이보은, 임다솔, 정양숙, 허란 님의 글쓰기가 타인의 창작을 매개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영감과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진솔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준 위 참여자들과 본 과정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큰 도움을 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박다엘 님, 한국능률협회의 변주영 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김효나

목차

1. 정종필 창작자의 작업물 들여다보기와 ‘관찰일지 쓰기’	4
2. 정진호 창작자, 고희실 매개자와의 만남과 ‘작업소개 글쓰기’	8
3. 김현우 창작자와의 만남과 ‘자유로운 글쓰기’	12
4. 김동현 창작자, 방민정 매개자와의 만남과 ‘나만의 단어 찾기’	17
5. 창작 유형별 재료 및 드로잉 탐색과 ‘따라가는 드로잉’	21
6. 발달장애 창작자 대상 예술교육의 방향성 토론 및 개별 사례 발표 중 참여자 김지연의 원고 <푸른 그림자에서 빼죽 나온 반짝이는 고갱이를 따라>	26
▶ 참여자 후기	32

9월 22일 1차시 강의
<정종필 창작자의 작업물 들여다보기와 ‘관찰일지 쓰기’>



A4용지와 모나미 볼펜 등 일상적인 문구용 재료를 사용하여 특정 소재를 반복적으로 그리기에 쉽게 ‘자폐적’이라 여겨져 방치되고 버려졌던, 정종필 창작자의 실제 작업물을 면밀히 들여다본 후, 아래 항목에 대해 순서대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1. 그림에서 보이는 것에 대해 묘사해보세요.
2. 창작자가 이러한 그림을 왜 그렸을 것 같은지 창작의 동기에 대해 상상해보세요.
3. 창작 매개자로서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 또는 감정이 드는지 서술해보세요.

왜 기린의 배가 블록할까? / 임다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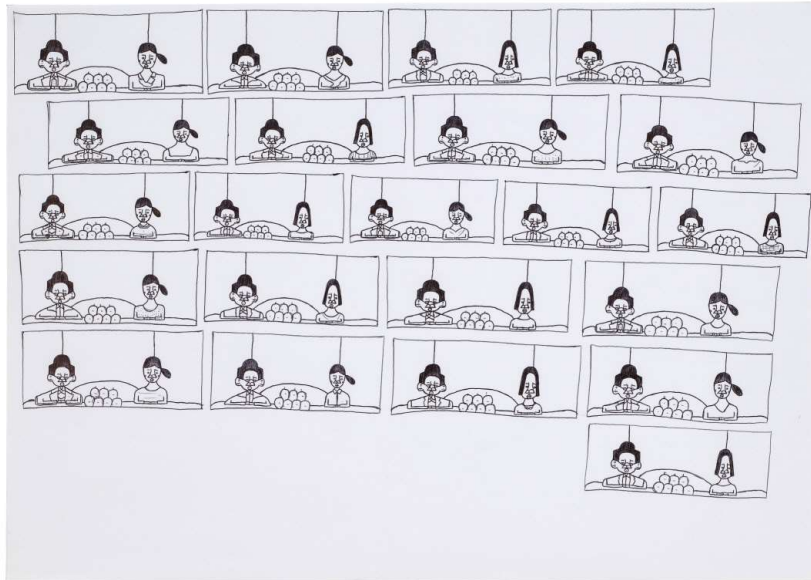
1. 그림에서 보이는 것
 - 에이포 종이, 볼펜과 색연필, 색볼펜.
 - 일상과 매체에서 볼 수 있는 사물(굴러가는, 돌아가는, 쓰임이 있는)과 동식물. 인간.
 - 사물은 반듯하게 정렬되어 있으며 동물은 측면을 바라보며 불규칙한 방향성.
 - 결혼사진이 크게 반복되었는데 이 그림에서는 폴라로이드인 것을 발견. 누구인가? 누구의 결혼사진일까?
 - 신부, 신랑 모두 부케를 들고 있음.

2. 창작자는 이 그림을 왜 그렸을까?

- 동물을 좋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친하다.
- 정리 강박이 있을 것 같음.
- 기념일, 기억, 순간포착>기억.
- 과일은 모두 단면이 보이게, 커피도 내용물이 보이게.
- 동물은 책이나 미디어에서.

3. 창작매개자로서 드는 감정이나 생각은?

- 남자인가? 몇 살일까? 궁금하다.
- 왜 기린의 배가 볼록할까? 뱃속에 아가가 들었을까?



티브이 속 사람들과의 관계를 편안해했을까? / 허란

1. 그림에서 보이는 것

본 그림에서는 매일매일 방송되는 프로그램 MC들의 모습이 보여진다. 각각의 편을 컷으로 나눠 반복적이지만 매일 달라지는 사람의 의상과 머리스타일을 기록한 듯 보이고, 얇은 볼펜으로 꼼꼼하고 힘 있게, 구도와 형태를 주의하여 그린 듯하다. 남성MC는 똑같으나 여성MC는 매 편마다 달라지듯 랜덤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추석 시즌, 계절감, 카라 표현 등의 디테일이 담겨 있다.

2. 창작자는 이 그림을 왜 그렸을까?

작가는 매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구도로 방송되는 티브이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봤을 것 같다. 매일 반복되지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에서의 잔상들을 기록하는 데 욕구를 느끼지 않았을까 싶다. 그만큼 집 티브이 앞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지 않았을까. 그 와중에 의상이

나 머리스타일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재미를 느꼈을 것 같고, 매번 달라지는 사건들도 재밌지만 이를 재밌게 풀어내는 MC들에 관심을 가지는 점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을까 싶다. 티브이 속 사람들과의 관계를 편안해했을까?

3. 창작매개자로서 드는 감정이나 생각은?

우선 프레임 안에 똑같은 구도로 정말 많은 양을 기록한 것에 놀라웠다. 특히 이제는 잘 보지 않는 저녁 시간대 생활정보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사건의 내용도 아니고 MC를 그려냈다는 점이 작가의 생각과 삶의 패턴이 더욱 궁금해졌고, 정말 세밀하게 옷과 머리, 사람이 바뀌는 것을 관찰해냈다는 것에 경이로웠다(난 기록을 못하는 사람이라...) 그 와중에 추석 시즌에 맞게 한복을 입고 배경에 감이 달려있는 변주를 한 것이 재밌었다.

왜 화면을 등장인물의 정수리에서 나눴을까? / 김지연

1. 그림에서 보이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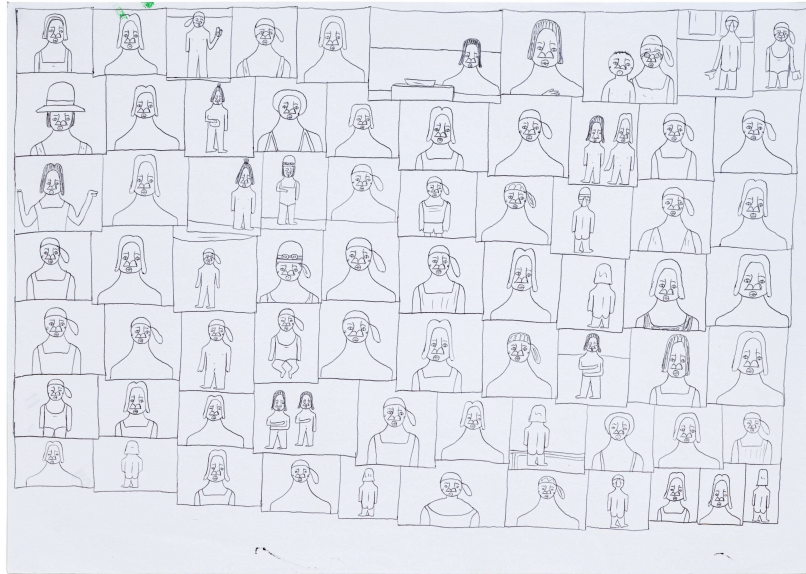
- 볼펜을 사용해서 그림.
- 깔끔하고 완벽한 선을 가지고 천천히 똑똑 눌러서 그림.
- TV 프레임으로 보이는 화면에 (세트장에) 남녀가 의상을 바꾸어 입으며 반복적으로 등장.
- 같은 소품, 같은 구도, 같은 등장인물(성별 동일).
- 머리카락은 채색. 정수리를 중심으로 선이 그려짐.

2. 창작자는 이 그림을 왜 그렸을까?

- 매일 정해진 시간에 TV를 시청하는 사람.
- TV에 출연하는 앵커, 아나운서, 마이크나 의상에 관심이 많음.
- TV가 설치된 방 안에서 나가는 것이 낯설고 이동에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있을 수도.
- 옷 갈아입는 것을 좋아하거나 말을 잘 전달하고 싶어 할 수도.
- 그림을 대하는 작가의 태도는 진지하고 심각한 듯하다. 예배드리듯 숭고한 자세이지 않을까.

3. 창작매개자로서 드는 감정이나 생각은?

- 왜 이 그림을 골랐을까? 반복되는 구성, 이미지 사이에 의상이나 소품, 헤어디자인을 통해 재미를 부여해서 호기심이 생김.
- 작가는 왜 반복해서 그렸을까? 왜 정면만을 그렸을까? 등장인물과는 어떤 관계일까? 왜 화면을 등장인물의 정수리에서 나눴을까?
- 궁금증이 높아진다. 앵커를 매우 선망하는 듯하다. TV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 사람일까?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일까? 외부의 소식을 귀 기울이는 바깥세상에 호기심이 많은 걸까?



어깨가 아픈 건 아닌지? / 문해주

1. 그림에서 보이는 것

칸에 그림이 들어가 있다. 사람이 등장한다. 왼쪽 어깨에 파스를 붙였다. 스토리가 있을 것 같다. 일상의 이야기 같다. 펜으로 스윽 스윽 그려나갔다. 에이포용지와 볼펜을 사용했다.

2. 창작자는 이 그림을 왜 그렸을까?

기억에 남는 장면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렸을 것 같다. 언제든지 그리기 좋게 에이포용지와 펜을 들고 다닐 것 같다. 마음 편안하게 일상을 기록하고 되돌려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 같다.

3. 창작매개자로서 드는 감정이나 생각은?

편안한 일상의 모습은 내 모습 같기도 하고 사람들의 하루 같기도 하다. 어깨에 파스가 궁금하다. 어깨가 아픈 건 아닌지? 등장인물들 관계가 궁금하고 스토리가 이어지는지 궁금하다.

10월 13일 3차시 강의
<정진호 창작자, 고혜실 매개자와의 만남과 ‘작업소개 글쓰기’>



고대 신화와 신화 속 동물, 세계 역사, 진화론 등을 연구하며 ‘하이퍼 비드맨 유니버스’ 라는 자신만의 세계관을 창조하는 정진호 창작자의 강의 퍼포먼스와, 그의 창작 활동을 30년 간 지원해오고 있는 고혜실 매개자(정진호 창작자의 모)의 매개 활동에 관한 강의를 들은 뒤, 참여자 자신이 정진호 창작자의 작업을 전시하는 기획자 또는 큐레이터라 가정하고 오늘 경험한 그의 창작세계를 소개하는 글쓰기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나는 괴물” / 이보은

정진호 창작자는 자신만의 세계관을 끊임없이 구축해나가는 작업을 합니다.

그 세계관은 정진호 창작자만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어 그의 언어로 직접 설명될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을 구축하고 설명하는 과정은 강의 형식의 퍼포먼스로 이뤄집니다. 강의는 가르치는 사람(선생)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학생) 간의 지식의 격차가 있고, 때로는 일방적이기도 합니다. 정진호 창작자는 강의를 하는 도중에도 자신의 세계관을 확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수직적 관계를 흐트러뜨립니다.

정진호 창작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일 것입니다. 그가 선생이 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괴물이면 뭐 어때, 같은 느낌...

“창조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 임다솔

작가 정진호는 자신의 세계관 작업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샤프 혹은 연필로 캐릭터를 순식간에 그려내고 볼펜으로 덧대어 형태를 완성한다.

작가가 탄생시킨 캐릭터는 가상세계 안에서 역할을 부여받고 작동되어진다.

작가의 가상세계는 불가시세계와 가시세계(현실)의 탄생부터 역사까지 굉장히 촘촘한 구성으로 짜여있으며 종교적이며 철학적이다. 불가시세계와 가시세계를 관장하는 ‘신’이라는 캐릭터들의 서사와 능력이 재미있다.

‘감정’을 다루는 점에서 특히 흥미로웠다. 대개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은 타인과의 교류, 감정을 캐치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작가는 ‘감정’을 ‘대충 느끼는 감정/깊은 감정’으로 구분하여 신들은 감정이 없고 대충 느끼는 감정(얕은 감정)일 뿐이며, ‘에트로’의 피와 혼돈이 섞이며 생명이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에트로가 느낀 분노로 인한 자기 파괴의 과정에서 ‘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깊은 감정을 자각하고 세계관에 적용시킨 부분이 인상적이다.

지속되는 역사의 예술 / 허란

정진호 작가의 퍼포먼스로 엿본 그의 세계관은 굉장히 방대했다.

신화나 종교, 역사 등 현실세계를 이해하는 다양한 거대담론을 흡수하고 재해석하여 창조된 현실세계와 닮았지만 조금은 다른 ‘팽창세계’의 거대사는 한 개인이 함부로 만들 수 없는 이 세계의 창조자로서의(혹은 신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듯 했다.

작가님이 이 세계를 설계하고 확장시키면서 현실세계를 이해하는 수단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했다(본인이 창조주지만, 스스로를 이 세계를 연구하는 ‘교수’로 정체화했다는 점).

무엇보다 중요한 지점은 이 창조적 행위가 지금의 역사가 그러하듯 멈춰 완성되지 않고 함께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 ‘예술’이라는 것의 본질이 완성에 있지 않고 인간에 의해 지속된다는 것과 맞닿아있다고 생각했다. 교수님과 함께 이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조수이자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작품의 결과물 자체를 벗어나 작품으로 제작되고 정의되고 작품의 주변인들(예술가, 매개자, 감상자 등)과 교류되고 지속되는 것에 예술의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젝스 교수’의 연구는 지금도 계속된다 / 정양숙

정진호 작가는 일종의 ‘창조자’로 보여진다.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만들고 또 확장시켜 가는 것이 놀라운 작가이다.

정진호 작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해서 집 근처의 어린이 도서관을 자주 갔다고 한다. 그림이 아닌 활자를 통해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여타 발달장애인들과는 차별되는 특별하고 놀라운 능력이다.

작가는 언젠가부터 자신이 창조한 세계에 자주 들어갔다. 좋아하는 게임과 가면라이더 등의 만화를 통해 지금까지 존재하는 어떤 것보다 독특하고 한편으로는 난해한 세계관을 창조(!)했다.

원하고, 꿈꾸고, 들었고, 보았던 많은 것들이 그의 새로운 세계에 녹아들었다.

오늘은 특별히 ‘하이퍼 비드맨 유니버스’의 세계를 강의했다. (그는 부케 ‘젝스 교수’로도 불리며 수많은 강의를 하였다.) 강의 후 돌발퀴즈를 준비하고 우수 학생에게 자신의 영감이 녹아든 존재를 그려주었다.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 그만의 세계관을 확장시켜 가는 것이 놀랍다.

그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

펼쳐질 그의 광대한 세계가 기대된다.

<젝스 교수의 수호환수제작소 X 뮤지엄업그라피티 아트> 연구개발 계획 / 교수형

*주의사항

본 연구개발의 목적이 창작이 아닐 수 있으며 제작된 수호환수는 아무 기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스프레이 페인트 > 스케일UP

데이터 발생 - 디지털 트윈 캐릭터

AI 적용한 움직이는 환수

*연구방향

익숙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할 때 창작에 미치는 영향

-그림 크기가 커짐(?): 획 자체 두께가 달라져서, 캔버스 크기가 달라져서.

*젝스 교수 정진호 작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워딩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을 토대로 함 ex)인간의 본성, 신화적 구조

재미를 보다 / 김지연

외계로 나가 외계 생명체를 대면하려는 이 시대에
평균을 정해놓고,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진호 작가는 무한히 재미를 보며 (재미에 미쳐가는 특이한 괴물이 되어)
동시대를 반영한 시선으로 무해하고, 능숙하게 다양하고 깊은 세계를 구현하고 있다.

그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창조주의 절대적인 존재가 느껴진다.
무한하게 확장하고 변화하는 캐릭터들. 살아 움직이는 듯 속도감 있는 필력.

재미를 느끼는 것을 넘어 재미를 보는 듯한.
절대적인, 조물주의 시선, 복잡하고 유기적인 세계표현.

괴물 작가 정진호 프로필 / 박선화

정진호 작가는 ‘하이퍼 비드맨 유니버스’ 라는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 작가이다. 일반적인 자폐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내면세계를 드러내어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꺼려 하지만 작가는 자신만의 세계관을 명확하고 세세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고 즐겨본 일본 만화나 책, 게임 등을 통해 자신의 세계관을 구축하고 증축해나간다.

정진호 작가의 어머니인 고혜실 씨는 아들의 강의를 듣는 최고의 수제자를 자칭하며 그의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해준다. 그녀 또한 아들이 작업을 하는 동안에 아들의 그림을 모티브로 한 수예품을 만들어 아들의 작품을 응원해준다. 작가와 매개자의 좋은 예이다.

너와 나 사이에서 마주한 너와 나의 예술세계 / 문해주

정진호 작가가 보여준 열정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열정적으로 무언가에 몰두한 사람들의 뒷모습은 빛이 난다.
오늘 만난 정진호 작가의 열정은 고요하지만, 살아있음을 계속 이야기하듯 우리에게 말을 건다.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나요?”
그것을 바라보는 작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를 예술가로, 그냥 그 존재만을 바라보고 있음을 느꼈다.
우리도 우리 가까운 누군가를 그 존재 그대로 느낀다면 어떨까?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가까운 사람, 가족부터 변화되고 출발해야 하는 건 아닐지...
오늘 정진호 작가님과 작가 어머니님을 보며 크게 느낀 부분이다.

10월 20일 4차시 강의

<김현우 창작자와의 만남과 '자유로운 글쓰기'> 장소: 밝은방

스스로를 '픽셀킴'이라 부르며 '픽셀'을 기본조형 삼아 자신만의 우주를 그리는 김현우 창작자와 직접 교감하며 그의 드로잉 과정을 실제로 들여다보고, 그의 창작세계를 담은 책 「나는 직관적인 노래를 잘 부릅니다」(손들, 2021)의 제작과정에 대한 강의를 들은 뒤, 다음과 같은 방향성으로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관찰, 만남, 대화, 교감, 발견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와 연결된, '자신'의 최근의 질문이나 관심사, 또는 고민과 연결된 자유로운 글쓰기를 시도해봅니다.

정종필 창작자의 작업을 마주한 뒤 울컥하는 마음으로 썼던 <이 그림은 무엇인가요?>처럼 질문형 문장들의 연속도 좋고, 15년 동안의 매개 활동 후에 썼던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해 보려는 노력>처럼 자신만의 불가능 또는 어려움에 근접하려는 내용도 좋으며, 편안한 예제 이 형이나 시 형태의 글도 좋습니다.

단, 가능한 많은 이들의 보편적인 공감과 설득을 얻어낼 수 있는 글, 비단 '발달장애 창작의 매개 활동'의 영역에 관심 있는 이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글이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공감하여 읽어볼 수 있는 글을 지향해 봅니다.

'매개자' 말고 '매개체'가 되고 싶다 / 김지연

가끔 동해에 간다. 힐링하고 싶을 때.

목 뒤가 으슬으슬 찬 기운이 느껴지고 감각이 무뎌져서 더듬거릴 때 즈음이면...

동해에 간다. 하염없이 밀려오고 밀려가는 파도를 보면서, 바라보지만 바라보지 않으면서, 생각이 없이 생각하면서.

현우 작가의 병긋 미소 장착을 보면 동해의 파도가 떠오른다.

생각 없이 그렇다고 생각이 진짜 없는 건 아닐 텐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도 저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욕구가 밀고 올라온다.

밀려오고 밀려오는 평온한 무언가 만이 느껴지는 시간. 젖들한 손짓.

“당신은 어떠신가요?”

나에게 그림을 설명해주는 말투와 눈빛이 나의 안부를 묻는 배려 깊은 사인으로 느껴진다.

요즘 '매개자'라는 표현을 자주 떠올리곤 한다.

'매개자' 말고 '매개체'가 되고 싶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매개할 수 있고, 또 어떤 매개자가 좋은 매개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이, 어디까지가, 매개자의 개입이 가능한 건지. 내가 이해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게 불편하다. 불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느껴져도, 직면해서 알아보는 과정이 그 과정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예술인 걸까...

얕고, 깊고, 다채로우면서, 따듯한 것들... 채집...

김현우 작가를 만났다 / 박선화

김현우 작가를 만났다. 평소 궁금하고 신기해했던 작가를 실제로 보니 반갑다.

그가 작업하고 있는 ‘밝은방’이라는 작업실. 걸려있는 그림들이 여느 화실이나 작가 작업실과는 다른 자유로움이 느껴진다.

그의 작업노트를 보고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니 떠오르는 단어가 자유롭고 즐거워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그에 겹쳐 우리 아들의 작업시간이 떠오른다. 다르다. 정말.

그의 작업시간은 즐거움이 가득한 손놀림과 눈썹의 자유로운 놀림으로 미루어 자신의 세계에서 집중하며 너무나 행복해하는 걸 느낄 수 있다.

또 한 가지 그의 책에서 본 <살아간다>라는 필체는 나를 혁! 하고 놀라게 하는 감동이 있었다. 그의 필체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즐거움과 슬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아 감동적이다. 우리 아들도 자신의 작업이 즐겁고 행복하기를 기원해본다.

흰 종이를 채울 수 있었을까? / 임다솔

10시간, 100시간을 들여 그린 그림들이 수북하게 쌓여있는데 또 새로운 종이에 그림을 그린다.

나도 현우 작가처럼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림으로 채운 적이 있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사물을 보고 똑같이 따라 그리는 그림을 수천 장 그렸을 텐데 대부분 재미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목적을 달성하였으니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었다.

치열하게 고민하던 그 시기에, 그 시간들을 현우 작가처럼 자기표현의 목적으로, 아니면 목적이 없이 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렸더라면,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있었을까?

흰 종이를 채울 수 있었을까?

나는 여전히 나의 5년 전을 생각한다 / 허란

나는 여전히 나의 5년 전을 생각한다.

작업을 하는 동료들과 같이 신촌 반지하의 작업실을 꾸며가며 고민하던 그때.

그때의 나는 내가 멋진 작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일을 때려치우고 내 모든 것을 불태운 시점이었다.

그때의 작업실은 나름의 투쟁의 공간이었다. 나, 그리고 동료들의 작업이 어떻게 선보여야 할지 고민하며 서로의 작업을 비평하고 고민했다.

작가는 버텨야 한다, 다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싫었다.

내 작품이 완전했으면 했고, 계속 고민했다. 고민만 했다.

그러다보니 웬지 작업실에 가기 싫어졌다. 완전하지 않은 내가 부족하게 느껴졌고, 결국 난 작업은 당분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랜만에 물감 냄새 가득한 작업실 <밝은방>에 와보니 나의 5년 전이 생각난다. 각자의 작업물과 영감이 가득한 벽들, 낙서들, 기록들.

왜 그때의 나의 벽은 멈춰있었을까.

서로의 작업이 더 완벽했으면 했던 마음에 이야기 나눈 뭔지도 모를 ‘예술’이라는 것이 계속 허공에만 있었구나, 생각을 했다. 그게 빨리 완성되어야 하는 전부인 줄 알았나보다.

밝은방의 여러 창작자들의 시간이 상상된다. 각자의 세계에 몰입해 표출하는 시간, 그 시간을 오랜 시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밝은방의 언어들.

예전의 우리는 제법 성급했나보다.

각자의 시간을 기다려줄 따듯한 공간이 갖고 싶어졌다.

맑은 얼굴을 보았지!! / 고수형

오다가 든 생각. 오다가 만난 사람. 오다가 본 맑은 얼굴들.

은평구 연신내에는 얼마 만에 온 건지. 거의 5년만인가 싶은데 그때가 언제였냐는 질문에 옥상에서 ‘김치 담치 담글 때’였나? 싶은 기억이 문득 떠올랐다.

거기가 무한리필 고기 집이었는데 가게 이름이 뭐였더라. 무슨 돼지였는데 글을 쓰려고 종이 에 생각을 쏟아내기 시작하니 잊혀진 기억이 또 생각이 났다.

아차 싶은, 뒤돌아 달려가서 전해주고 싶은 마음은 그냥 주머니에 꼬깃하게 집어넣어버리고 쫓기는 사람처럼 서둘러 들어온 곳에서 오다가 만난 사람에 대해 적는다.

마이너리티. 디서빌리티. 어떤 동질감.

내가 실수한 건가, 내가 놓쳤구나, 안개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알아채기 어려운 게 시간이다(얼마큼 흘러버렸는지). 누구에게나 규격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고 외면할 수도 있고 알아채는 것이 고통일 수 있지만 말할 수 있다면 이미 지나간 것이기도 하다.

이사를 갔다고 했다.

어디로 갔냐고 물으니 그건 다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언제냐고 물으니 오래되었다고 했다.

돌아올 생각이 있냐고 묻기에 언젠가 한번은 다시 뵙고 싶은 분들이라고 대답했다. 서울의 끝 도시의 변방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적 부진아라고 생각했었던 때 그분들이 들려주었던 옛날 옛날이야기들이 하나도 생각이 나질 않아 조금 그립다.

나만의 색깔 / 이다영

음... 최근 내 고민의 화두는 '내 색깔'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다른 사람들의... 모든 의견들.

휘둘리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한 순간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연기가 너무 좋았고 잘하고 싶었다. 너무 좋아서 내 색깔을 잃어버렸다. 그 욕심을 줄이기 위해 또 다른 노력들, 그리고 에너지들을 쏟기도 했다. 자신의 작업에 집중하며,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단혀있는 것이 아닌, 기분 좋게 작업하는 현우 작가님을 보며 난 참 많이 '외부'에 휘둘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방대한 작업물들.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그리고 즐겁게, '나만의 색깔'이 담길 수밖에 없구나.

난 정답을 찾기 위해 연기해온 것 같다. 맞다고 하는 연기.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기.

그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좋아하는 연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연기는 무엇일까.

내 연기가 '예술'이 되기 위해 난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할까-

고민, 생각을 시작하면 답답해지지만, 이번 고민은 기분이 좋은 고민이다.

*힐링에는 이유가 없는데, 난 계속 이유를 찾아왔다. 왜 편안할까. 왜 좋을까. 그냥 기분이 편안하고 좋은 느낌이다.

*"색깔을 찾아야지"하고 찾아지는 게 아닌 걸 알고 있다. '나'에게 집중하자. '나'를 더 사랑해주자.

*음악과 분위기가 너무 좋다. 오는 길은 험했지만... 천안>서울>혜화>연신내... 도르륵. 그치만 오히려 좋아! 여행하는 기분이 되었고 오는 길, 여기서 진행하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다.

오늘의... 어제의... 그 어제의... 그 그 어제의... / 문해주

오늘의 만남

오늘의 내가 살던 동네

오늘의 동료와 친구

오늘의 날씨

오늘의 시간

오늘의 시간과 시간 사이

오늘의...

나는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 이보은

나는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사회 곳곳에서 잘 발휘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당신의 자신감이 부럽네요.
어릴 때 응원한다는 작은 간식들을 많이 받았어요.
나를 오래 봐오지 않았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릴 적에 반지하에서 살았었어요.
바닥에 고인 물을 퍼내거나 천장에 붙어 DMB를 보곤 했죠.
지금은 편히 소파에 누워 시야에 찬 뉴스를 보는데
반지하 이야기가 나오네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나를 보고 참 보기 좋았다고 하십니까?
사랑을 나에게 주겠다고 하니
과분해서 돌려드릴 수밖에요.

10월 27일 5차시 강의
 <김동현 창작자, 방민정 매개자와의 만남과 ‘나만의 단어 찾기’>



현실과 가상이 뒤섞인 노선도, 도로와 터널의 풍경을 그리며 노트의 페이지를 덧대거나 종이를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공간을 확장시키는 김동현 창작자와 직접 질문을 주고받으며 그의 드로잉 및 노트 작업을 실제로 들여다보고, 그의 창작 활동을 10여 년간 지원해오고 있는 방민정 매개자(시각 디자이너)의 매개 활동에 관한 강의를 들은 뒤, 아래 항목에 대해 순서대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1. 지금까지 만난 창작자들의 작업을 돌이켜보면서 떠오르는 형용사를 적어봅니다. (예. 연약한)

2. 창작자들과의 만남을 돌이켜보면서 떠오르는 동사를 적어봅니다. (예. 응시하다)

3.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 창작자의 예술작업에 관해 나만의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장롱 속에 숨은 예술, 먼지 쌓인 예술) 그리고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포착된 사건의 예술 / 이보은

1. 지금까지 만난 창작자들의 작업을 돌이켜보면서 떠오르는 형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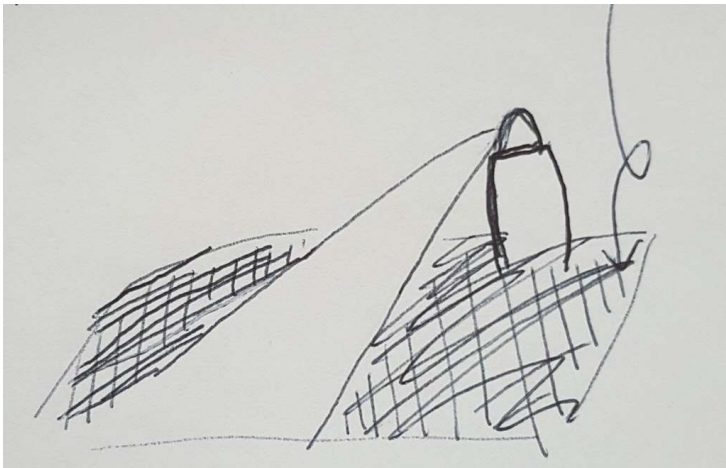
좋아서 하는	일상적인	깊은	유연한	연속된
빠진	모르는	편안한	많은	있었던
고유한	흐르는	단단한	긴	보이는
예측불가능한	안정된			

2. 창작자들과의 만남을 돌이켜보면서 떠오르는 동사

고민하다	궁금하다	연결하다	따듯하다	대화하다
미치다	발견하다	확장하다	드러내다	감각하다
들여다보다	소개하다	재밌다	웃다	열리다

3.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 창작자의 예술작업에 대한 나만의 정의

: 포착된 사건의 예술



이미 벌어진 사건.

이미 존재하나 발견되지 않은.

그 속엔 흥미진진한 일들이 벌어지는.

“여겼다!!”

눈을 뜨고 꾸는 꿈을 그린 그림일기 / 고수형

1. 지금까지 만난 창작자들의 작업을 돌이켜보면서 떠오르는 형용사

이상한	즐거움	아름다운	행복한	어려운
복잡한	요상한	재미지는	살아있는	소중한
반복되는	시간이 많이 드는	사랑스러운	비밀스러운	설명할 수 없는
희한한	복잡한	아픈	괴로운	조그마한
무채색의				

2. 창작자들과의 만남을 돌이켜보면서 떠오르는 동사

살다	살아내다	살아남다	살아지다	만나다
궁급하다	궁리하다	찾다	찾아내다	찾아가다
숨기다	숨길 수 없다	숨겨지다	숨다	돌다
멤돌다	상상하다	들어가다	지나치다	

3.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 창작자의 예술작업에 대한 나만의 정의

:눈을 뜨고 꾸는 꿈을 그린 그림일기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꾸는 꿈을 표현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 대신 붓이나 펜을 들었나? (버지니아 울프)

how many times have people used a pen or brush because they could'nt pull a trigger?

발견되길 기다리는 노트 속 평행세계 / 허란

1. 지금까지 만난 창작자들의 작업을 돌이켜보면서 떠오르는 형용사

방대한	살아있는	생생한	진정한	빛나는
낮선	두려운	경이로운	안타까운	멋있는
엄청난	익숙한	새로운		

2. 창작자들과의 만남을 돌이켜보면서 떠오르는 동사

발견하다	정의하다	지켜보다	이해하다	기다리다
듣는다	생각하다	고민하다	연결하다	상상하다
분해하다	조립하다	결합하다	받아들이다	노력하다
떠오르다	확장하다	공감하다	질문하다	

3.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 창작자의 예술작업에 대한 나만의 정의

1) **발견되길 기다리는 노트 속 평행세계**

2) **큰 소리에 묻혀 작게 들리는 또 다른 주파수**

독특한 시선의 예술 / 박선화

1. 지금까지 만난 창작자들의 작업을 돌이켜보면서 떠오르는 형용사

비밀스런	깔끔한	자유로운	길쭉한	단정한
정리된	귀여운	조그마한	아름다운	무채색인
뽀뽀한	깨끗한	단아한	복잡한	즐거운
행복한	끈끈한			

2. 창작자들과의 만남을 돌이켜보면서 떠오르는 동사

길다	깨끗하다	뽀뽀하다	귀엽다	하얗다
자유롭다	조그마하다	깔끔하다	아름답다	단아하다
모인다	교감되다	통하다	공감하다	행복하다
기다리다	듣는다	노력하다	연결하다	

3.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 창작자의 예술작업에 대한 나만의 정의: **독특한 시선의 예술**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건물을 그려도 장애 화가들의 그림과 비장애 화가들의 그림은 차이가 있다. 색상에서 구도에서 느낌에서 모든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난다. 일반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정서로 색을 칠하고 건물을 분해 또는 관찰하는 능력이 장애 작가들에게는 있다. 그들은 비장애인들과는 다른 독특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

고유한 세계관이 담긴 예술 / 임다솔

1. 지금까지 만난 창작자들의 작업을 돌이켜보면서 떠오르는 형용사

무한한	오밀조밀한	똑똑한	되내이는	솔직한
진솔한	신기한	묵묵한	불친절한	부러운
고유한				

2. 창작자들과의 만남을 돌이켜보면서 떠오르는 동사

이해하다	연결하다	방대하다	몰입하다	관찰하다
------	------	------	------	------

3.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 창작자의 예술작업에 대한 나만의 정의

: 창작자의 고유한 세계관이 담긴 예술

11월 3일 6차시 강의

<창작 유형별 재료 및 드로잉 탐색과 ‘따라가는 드로잉’> 장소: 밝은방



발달장애 창작자의 창작 유형별 대표적인 드로잉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각 드로잉에 사용한 재료의 특성을 파악한 뒤, 그중 하나의 드로잉을 선택하여 모사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며 해당 창작자의 고유한 작업방식(속도, 필치, 주제 등)을 이해하고 체험해 보았습니다.

<발달장애 창작자의 창작 유형 및 사용 재료>

A. 매일 일상적인 작업의 지속(기록)이 중요한 창작자의 경우

>가볍고, 다루기 쉽고, 의도한 대로 정확히 표현되는 재료: 마커, 연필, 수채물감

>대표 창작자: 정종필, 김동현, 정진호

B. 과감하고 빠르고 즉흥적인 필치로 드로잉하는 창작자의 경우(주로 색면추상)

>색상이 강하게 표현되고 두터운 질감 표현이 가능한 재료: 오일크레용, 오일바, 아크릴, 먹

>대표 창작자: 서명수, 신동빈

C. 즉흥적이고 본능적인 필치로 드로잉하면서 특정 장면의 ‘재현’ 위주로 표현하는 경우

>색상이 강하게 표현되고 두터운 질감 표현 가능한 재료+ 세부묘사 가능한 재료

:오일크레용+ 테레핀(유화붓)

>대표 창작자: 배경욱

결의 번짐, 만남 / 김지연

-서명수 창작자의 작업방식을 따라가 보며 (판화지에 먹)



생각 없이 따라 그리다 보니 결이 보인다.

결을 따라가 보니 번짐이 느껴진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친구에게 안부를 전한다.

다 그리고 나니 마음이 멍멍하고 푸르게 번져있었다.

“우리 만난 것 같아.”

은평구로 갈까요? / 박다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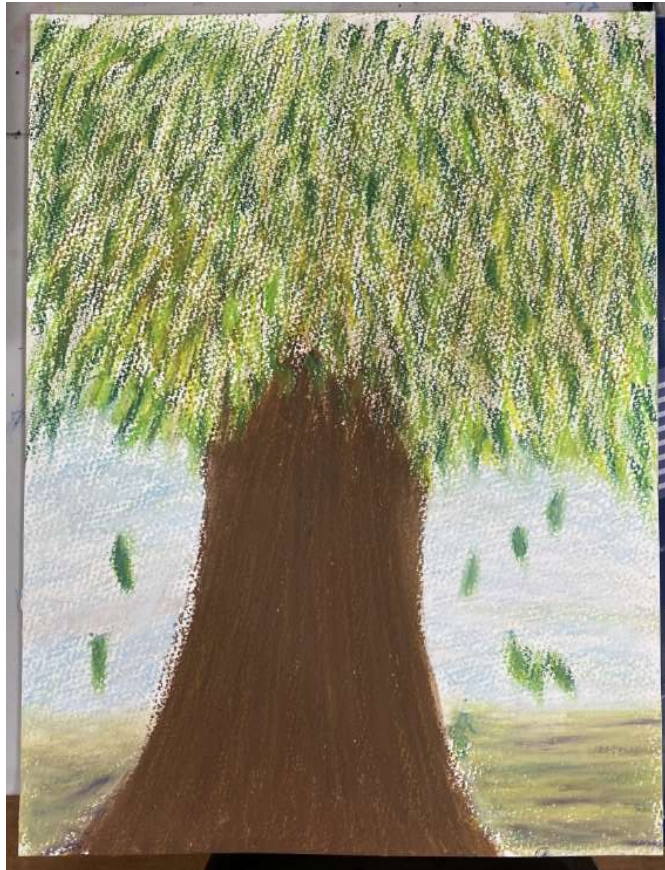
-김동현 창작자의 작업방식을 따라가 보며 (펜과 마커)



대학로에서 버스를 타면 마치 이 그림의 길처럼 방향 감각이 없어질 듯,
하지만 어느새 터널을 지나 도착지의 경계에 있다.
교육 장소에 도착하면 색칠된 경치처럼 그곳만의 색채가 느껴진다.
녹색 빛이 어울리는 곳, 은평구.

고목 / 박선화

-배경옥 창작자의 작업방식을 따라가 보며 (오일크레용과 테레핀)



들판 한가운데 서 있는 고목.
바람이 지나고 눈이 내리고 꽃이 피고 저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지키고 선 나무.

누구에겐 시원한 그늘이 되고
누군가엔 즐거운 놀이터가 되어주는
너의 이름은 고목.

인생은 언제나 휘몰아치는 바람이 지나지만
지나고 나면 허탈하고 쓸쓸함이 남기는
그 자리를 지켜주어 네가 참 고맙고 든든하다.

코끼리 두마 / 이다영

-서명수 창작자의 작업방식을 따라가 보며 (골판지에 오일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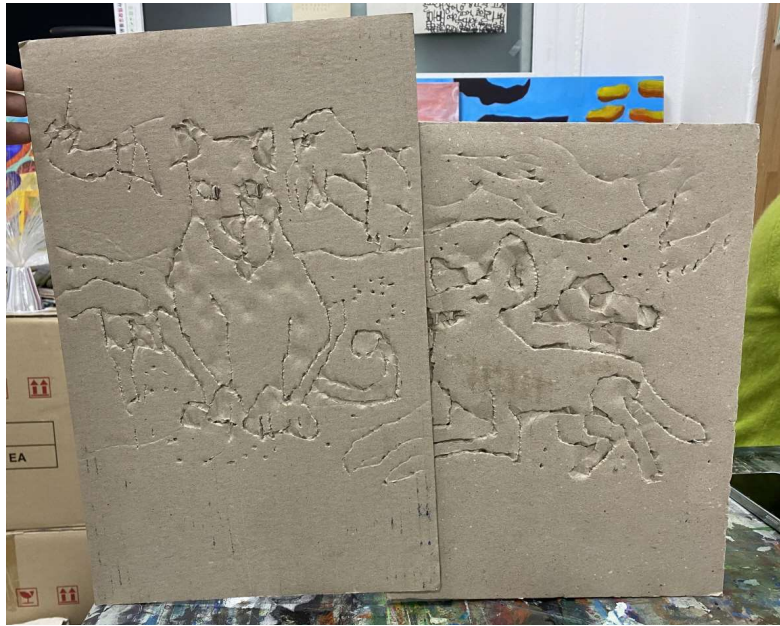
‘코끼리 두 마리’를 그렸다는 작가님의 그림을 따라 그려보면서,
‘어디가 코끼리인 거지?’
나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걸까? 작가는 어떤 코끼리를 본 걸까?
웃고 있는 코끼리? 검은 발바닥?
작가의 상상을 어찌면 반의반도 못 따라간 느낌이 든다.

바다, 하늘, 그리고 편견 / 이다영



틀에 갇힌 채 세상을 바라보는 건 아닐까.
이래야 해, 저래야 해, 섞이면 안 돼, 무언가를 표현해야 해...
이런 것들에 벗어나고 싶으면서도 또 다시 얽매이고 만다.
자유로운 바다와 하늘,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나의 시선.
뭔가 답답함이 느껴진다.

유단 창작자의 작업에 영감을 받아 / 고수형



거친 드로잉의 동물 그림이 매력적이라 이를 골판지에 옮겼다.
창작자의 그림이 입체적으로 표현되면 더욱 생생할 것 같아서
날카로운 것으로 골판지를 긁고 뚫어서 호랑이와 하이에나를 표현했다.



11월 10일, 17일 7~8차시 강의
<발달장애 창작자 대상 예술교육의 방향성 토론
및 개별 사례 발표>

본 과정을 정리하는 7~8차시에는 실제 창작매개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이슈에 대해 참여자들의 개별 사례를 바탕으로 함께 토론하고 구체적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참여자는 PPT 화면을 준비하거나 실제 작업물을 가져와 자신의 매개 사례를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발표하였는데, 유독 한 참여자는 장애를 가진 창작자들의 예술 작업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에 대해 A4용지 6장 분량의 짧은 원고를 작성해왔고, 그 원고 내에 **본 매개자 과정이 궁극적으로 던지고자 하는 질문: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인의 치열한 고민의 과정이 생생한 언어로 담겨 있어 의미가 무척 깊기에, 원고의 전문을 본 결과집에 담습니다.

<푸른 그림자에서 빠져 나온 반짝이는 고갱이를 따라>

김지연
(예술 강사, 기획자)

2018년.

처음 그들의 작품을 봤을 때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걸 다 기억해?

이걸 다 이렇게 표현해?

어떻게 이런 색감으로 거침없이 표현해 낸 걸까.

마치 머릿속에 상이 맺히는 부분, 에너지가 푹푹 떨어지는 덩어리를 한 번에 훑고 꺼내서 보는 사람 따위는 배려하지 않고 덩덤한 표정으로 짹 펼쳐놓은 느낌.

작품의 여운이 안개가 되어 뿌옇게 감싸다가 딱딱해졌다.

그리고는 슬퍼졌다. ‘장애가 있는데... 대단하네...’

그런데 가만히 슬픔을 느끼는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자니.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대로 장애를 딛고 훌륭하게 무언가를 해낸 취약한 소수자를 보는 여유로운 다수자의 감정이 아니었다.

미술을 전공했고, 결혼 전에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생각에 남들처럼 행복은 연봉과 비

레된다든 것을 인정하며 살았지만, 결국 예술하고 교육하는 사람으로 소소하게 만족하며 살고 있었는데... 소름이 돋았다. 초여름에 진입한 날씨였는데도.

그날 나의 감상은 사뭇 달랐다. 화살은 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내가 왜 슬픔을 느끼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작품에 앞서 그들의 취약한 부분에 동정과 연민을 느꼈던 내 자신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혹시 작품을 보고 감정을 느끼는 사고까지 학습되어서일까?’

억울했다. 연민도 일었다. ‘무엇에 가려져 있던 거지?’

푸른 그림자 밖으로 비죽 튀어나와 나의 눈에 띈.

작지만 반짝이는 감정의 고갱이를 나는 외면하지 못했다.

그것은 슬픔만이 아닌 복합적인 감정이었다.

그동안 나에게서는 그들의 취약한 부분들을 확대하여 경계를 긋고, 깊은 골 사이에 동정심을 쉽게 일게 하는 세팅된 감각회로가 작동하고 있었음을 스쳐 지나듯이 아주 잠깐 느낄 수 있었다. 인식의 순간이 길지 않았지만, 소수자들을 위한 슬픔과 동정심, 또는 놀라움이 이 감정의 전부가 아니란 게 확실했다. 분명 더 큰 무언가가 나에게 왔다.

그것은 오로지 작품을 감상하며 느껴진 순수한 감정이었다.

호기심이 나를 굶는다. ‘그게 왜 전부가 아닐까?’

불편하기 시작했다. 당시 지역문화재단의 문화다양성주간 연계행사로 전시 도슨트를 하고 있었는데 관람객들이 묻는 질문에 혹은 그들의 대화에 벼락 거렸고, 길 잃은 아이마냥 불편하고 불안한 상태였다.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이성과는 상관없이 호기심은 발동되어 이미 저 멀리 출발하고 있었다. 그들의 행위는 아직도 예술이란 무엇인지 논리정연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나에게 혹시 예술인지 모르겠는 '무엇'이 되어 다가왔다.

예술을 정의하지 못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게 확실하지만, 그 '무엇'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건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 순간 그들의 취약한 부분(사회적으로 다수가 소수를 향해 취약하다고 정해놓은 기준)은 내가 그들을 이해하는데 있어 필요했던 체크목록에서 탈출해버렸다.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장애라는 전제들이 신경 쓰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았다. 신기했다. 내가 아는 그들의 취약한 부분이 정말 취약한 것이었을까? 의심이 가기 시작했고, 길을 잃었던 내 정신은 해석의 단초를 발견했다는 확신에 이러한 감정선을 부여 잡고 무작정 따라가야겠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꼈다.

혹시 나에게 예술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들의 작고 연약하지만 한없이 깊고 얇고 따뜻한 '무엇'이란 존재가 오히려 예술을 설명할 때에 필요한 '본질적인 인간상'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도대체 예술이 뭘까?'

내 기준에서 '여기까지가 예술이지...'라며 세워놓은 험거운 울타리에 해맑은 양 한 마리가 침입하여 들락날락 하는 판에 나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앞서 출발한 호기심과 편을 먹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았다.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선물처럼 해법을 주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특별한 날에 집중되는 그들의 뉴스나 기사는 다수의 시선으로부터 해석된 말들로 가득하여 불쾌했다.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그들의 특별함은 준비되지 않은 나에게 이제 막 딱지가 진 상처처럼 간지러워도 긁지 못하는 복잡한 문제로 자리 잡아갔다. 그 사이에 예산이 제법 큰 공공미술 기획을 맡게 되었고, 19명의 작가 중 김현우 작가를 리스트에 올렸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거의 독단적으로 진행했다. 18인의 비장애인 작가들 속에서 특별한 대우 없이도 동등하게 작품이 가진 이야기만으로 헤쳐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하니 아마도 2018년 내가 느낀 그 의문의 감정들을 관람객이 느꼈으면 하는 마음이 컸지 않았을까 싶다. 그렇게 잡히지 않는 '무엇'의 뒷모습을 보고 기회가 오면 한번씩 더듬더듬 따라갔다. 좁고, 어둡고 지루하고, 불편하고, 내 생각에 스스로 공격받아 자폭도 하고, 이게 뭔데 하며 가끔씩 물어 두기도 하다가, 술 먹으면 친구 작가 놀과 싸우기 좋은 소재로도 등장하고, 드러나면 발로 밟아 다시 가리고, 가끔 캐내어 한 동안 지긋이 바라보기도 한 제멋대로인 시간이 흐르고 그렇게 2023년이 되었다.

대체 내가 이러는 이유가 뭘까.

무용하지만 아름다운 이 과정은 나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일단 찾아보자.

이 불편한 고갱이에 대해 설명해줄 아니, 솔직히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자.

그리고는 지금. 난 그들 앞에 있다.

.
. .
. .
. .

알 것 같은데 알 수가 없다.

표현할 수가 없어 심장이 간지럽고 뇌가 찌릿하다.

불편한데 또 느끼고 싶다.

예술이 맞는 것 같은데...

그들의 '무엇'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예술로 허용될 수 있을까.

가만히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숨을 멈춘다...

동영상을 찾아본다. 밝은방 에서 구입한 몇 권의 책들을 살펴본다.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아직도 모르겠다. 슬프지 않는데 자꾸 눈물을 머금게 되는 이유를. 기쁘기도 하고 그들이 부럽기도 한 그 감정들 말이다.

그들의 머뭇거리는 말투, 잘 들리지 않는 발음과 푹푹 끊기는 음성들. 그러나 곧.

약하지만 거침없고, 외부와 상관없는 듯 자신만의 리듬으로 내면을 향해 깊숙이 들어가는 모습에 현혹된다. 소박하고 일상적인 재료의 끝에서 묵묵히 흘러나오는 내면의 세계. 작품에 쏟는 진지함을 넘어선 깊은 시선, 조심스러운 호흡이 가득한, 고되고도 평온해 보이는 창작의 시간.

홀로 외로이 아무런 목적 없이 자신의 문을 열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깊이 들어가는 모습은 나로 하여금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을 심연 깊숙한 곳에서 건져 올려 펼쳐보게 한다. 그리고는 떠올려 보거나, 말해보지 못한 익숙하지 않은 감각들을 조합하고 재구성하며 마구 자극하기 시작한다. 아마 이 때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속 손가락이 닿는 장면처럼 내 뇌의 뉴런들은 아주 먼 시간만큼 죽어 있다가 짠하고 이어진 게 틀림없다. 이 복잡한 감정들 속에서 나는 나를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
. .
. .
. .

조금 더 자세히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들의 '무엇'에 관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멋진 단어를 생각하기 어렵게 되자 비슷한 성질의 것들을 일상 속에서 탐색하기 시작했다.

찾았다. 3D프린터다.

조각가인 친구 녀석이 가끔 아들에게 곤충모형을 3D프린터로 만들어 선물하는데 손바닥만 한 사이즈의 곤충을 인쇄하는데 보급용으로는 약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면서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다. 쇼츠에 익숙해진 내 눈은 3D프린터가 실을 쌓는 10초를 보는 것에도 지루함을 느꼈었다. 3D프린터는 원하는 모형의 도안을 입력하고, 고체의 필라멘트를 지급하면 모형을 얻을 수 있다. 필라멘트는 일정량이 서서히 녹아 노즐의 끝에서 떨어지고, 갓 녹아 뜨거운 실은 지루하게도 끊임없이 왔다갔다 이동하며 면을 만든다. 고체의 플라스틱이 뜨거운 액체가 되어 흘러나와 쪼뼛이 쌓이면서 그것은 곧 굳어 다시 고체가 된다. 일정한 속도로 끊임과 멈춤 없이 시간을 쌓는 동안, 짓누르는 힘으로 결이 고르지 않고 거칠기에 완성이 된 후 표면을 다듬지 않으면, 마치 커피 잔에 털이 난 듯한 그런 느낌을 가득 받을 수 있는 뜨거운 날것과 유사하다.

.
. .
. .

치기어린 시절, 대학교 후문에서 해장국에 소주 몇 병 놓고 군대 끌려가기 전 속풀이하는 동기의 “예술이 뭐데?”라는 말에 나는 있어 보이는 척 “목적이 없어야 진땀이 아닐까?” 하고 대답한 적이 있다. 겉모습이 어른이 되고 나서도 작가들을 만나게 되거나 작품을 볼 때에 작품의 무목적성은 작가로 인정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되었고, 어느덧 내가 작가라고 믿었던 이들은 초야에 묻혀 묵묵히 작업에 열중하거나, 현실과 타협하여 사장님이 되거나 둘 중의 하나가 답이 되는 쉬운 문제로 남겨졌다.

그런데.

윤미애 작가의 작품과 발화텍스트를 보고 너무 놀랐다.

정말 너무 놀랐다.

그냥, 내가 정신을 둘 데가 없어요.
뭘 만들려고 생각하고 만들지 않고
작업을 하면 마음이 좀 놓이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만들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이렇게 못 만들었을 거예요.

_ 「돋보기 그들의 여인」 중 (목소리: 윤미애/ 글: 김효나)

“예술을 향한 인간의 욕구는 원시적이며, 빵을 갈망하는 것보다 강렬한 것이다. 빵이 없으면 굶어 죽겠지만 예술이 없으면 지루해 죽는다. 예술은 눈이 아니라 마음에 초점을 맞춘다.”

_장 뒤뮈페

.
. .
.

모자이크를 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힘들고 피로운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 유일한 시간이고,
오롯이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활동이에요.

_ 「돋보기 그들의 여인」 중 (목소리: 윤미애/ 글: 김효나)

행위의 무목적성.

반복되는 행위로 무화(武火)하는 시간들.

어떻게 해석하든, 관심을 갖든 말든

그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몰입하는 정신.

동시대 작가들 중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문득 작가의 발화텍스트와 작품의 시각적 구성이 참으로 고마웠다.

그들의 ‘무엇’에 대해 최소한의 개입으로 본질을 다루려고 노력하는 매개자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와, 밝은방 선생님들... 감사와 존경이 우러러 나왔다.

고수들이다. 멋지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할 텐데...

.
. .
.

얼마 전 별세하신 단색화의 대가 박서보 화백의 단색화를 보다가 내가 찾는 '무엇'과 결이 닮

아있음을 발견한 부분도 내 주파수를 넘히는 과정 중 하나였다.

행위의 무목적성.

행위의 무한 반복성.

행위 과정에서 생성된 물성을 정신화 하는 것 (비워냄의 미학).

이쯤 되니 그들의 '무엇'은 적어도 내 기준에서 예술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게 확실해졌다. 그런데 우습게도 아직 예술의 기준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무엇'을 예술이라는 범주 안으로 수락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오류다. 그래도 이러한 과정이 싫지는 않다. 매운데 자꾸 먹고 싶은 불닭볶음면처럼.

자아의 경계가 당신이 느끼는 것에 의해 정해진다면, 자신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경계 안에서 수축할 것이다. 반면에 다른 이의 것까지 느끼는 이들은 확장할 것이며, 모든 존재에 공감하는 이들의 경계는 아예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홀로 있지 않으며, 외롭지 않고, 우리 자신이라는 섬에 발이 묶여 버린 이들과 달리 취약하지 않다.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취약하다. 그럼에도 타인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것이 지닌 위험은 상당히 강력해서, 많은 이들이 그 앞에서 물러나고, 그런 물러남을 정당화하는 이야기를 고안해 낸다. 그런 식으로 자신들이 수축해 버렸음을 잊는 것이다.

— 「멀고도 가까운」 중 (레베카 솔닛)

그들의 취약성은 사라진 게 아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특별한 게 아니다.

결국 '무엇'을 보는 내가 달라진 것 같다. 설명되지 않는 것을 쫓고, 상상하고 느끼고 사고하는 나의 내면의 것이 확장된 것이고, 내 자아가 확장된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의 세계가 넓어져 그들과의 교집합에 진입을 시도하여 닿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주파수가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이전보다 넓어진 범위에 들어와 나를 감동시킨 것이고, 이제는 그것을 감히 내가 감각하여 알아낸 '무엇', 내가 알고 있는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덧붙여, 그들의 '무엇'이 다수의 시선이 만들어 낸 '예술'이 아닌 각자의 존재와 이름만으로도 인정받는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 못지않게 묵묵하게 그들의 '무엇'을 발견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절제된 손과 따뜻한 심장을 가진 다양한 매개체들이 더욱 많아져야 할 것이다.

참여자 후기



“모든 강의가 인상 깊었습니다. 장소를 넘나들며 진행되었던 부분이 매개자로서 귀추가 되는 ‘밝은방’의 여러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이란 느낌보다는 집들이에 초대된 손님 대접을 받았다고 하면 맞을까요? 손님께 보이기 위해 가지런히 정리된 아카이빙의 흔적들. 따뜻한 차. 작업 시 틀어놓은 BGM등 ‘저런 것까지 공유하면 영업비밀(?)이 아닐까’ 싶은 부분까지도 오픈 마인드로 진행해 주셔서, 수업이 끝나면 마음이 충만하다고 해야 하나... 알 수 없는 만족감에 취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았던 부분은 기존에 알고 있던 장애인 창작자들을 매개하는 방식에 있어 다수의 시선이 아닌 창작자에게 포커싱 되어 진행되는 매개방식. 그리고 이론위주가 아닌 경험과 체험을 통해 켜켜이 쌓인 매개자로서의 노하우를 가감 없이 보여주고, 스스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도록 했던 무심한 가이드, 마지막으로 창작자들의 작품과 아주 닮아있는... 작은 규모지만 내면으로 깊고 단단한 밝은방의 정체성. 이것들이 배우고 싶고 부러웠고, 많이 인상 깊었습니다.” (참여자 김지연)

“발달장애인 창작자의 작품을 오롯이 이해할 수 있어 좋았고, 창작자에게 직접 질문하며 작품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이 기억에 많이 납니다. 발달장애인 창작자를 지원할 때, 창작자와 대화하며 작품의 의도를 알아가기보다 완성된 작품을 놓고 주변인들이 의미부여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매개자는 창작자에게 특정 방향으로의 창작을 유도하게 됩니다. 김동현 창작자의 작품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의도를 기대하고 질문했다가 별 의미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쓰윽 훑고 만 그림에는 특별한 에피소드가 담겨있었고,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림에는 역시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들이 재미있었습니다. 방민정 매개자를 통해 그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도 들을 수 있어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언어적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창작자를 만날 때가 많다보니 수업 방식에 한계를 두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본 과정에서 받았던 피드백을 반영하여 창작자의 스타일과 유사한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할 수 있는’ 수업을 기획하여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창작자의 작품에 관해서도 창작자의 언어를 빌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창작자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 부족했음을 느끼고 이제는 창작자의 작품을 더 오래 들여다보고 질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다른 방식의 글쓰기와 두 개의 공간을 번갈아 가며 수업을 진행하여 매 수업이 새로운 자극이 되었습니다.” (참여자 이보은)

“대전에서 오가는 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매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강님께서 글쓰기 결과물을 제작해 주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들었고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의미가 큰 선물이었습니다. 또 창작에 대한 시각, 매개자의 역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술의 범위에 대한 고민이 생겼고 매개자로서의 ‘나’, 그동안 어느 부분 너무 과도하게 개입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정양숙)

“내가 여태 생각해온 매개자의 역할이 창작자를 위한 적극적인 제안이나 후원이라고 생각했으나 이 강의 후 그런 것들이 창작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윤희미 작가가 버려지는 과자봉지나 종이를 가지로 자신만의 예술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들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박선화)

“첫 강의부터 굉장히 색달랐습니다. 내가 기대한 내용과 사뭇 달랐고, 아,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구나! 하고 자세를 다시 잡아야 했습니다. 너무 뜻 깊은 강의들이었고, 그때 처음 느낀 느낌이 강렬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직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 창작자와 작업을 한 적은 없지만 다른 분들의 사례를 보고 들으면서 참 조심스럽게, 또 섬세하게 다가가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고, 많은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김현우 창작자와의 만남이 기억에 남는데, 너무 기분 좋게 창작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며 ‘예술’에 대해 나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이다영)

“고민했던 매개자로서의 부족한 점들에 대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발달장애 작가의 창작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 관찰하는 사람, 혹은 제안하지 않는 제안자로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고, 아직 한 창작자를 온전히 매개해보지 못했지만 빨리 만남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참여자 허란)

“창작자들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의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어 그들의 삶을 면밀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진호 창작자의 어머니의 강의와 그들 모자의 우정 어린 관계가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에 글쓰기를 묶은 자료집도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함께한 시간들이 모아진 거 같아 뿌듯했습니다.” (참여자 문혜주)

2023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장애예술 교육 매개자 과정: 이 그림은 무엇인가요?

글쓰기 결과집

제작일 2023.11.

기획 밝은방 (김인경, 김효나)

제작·편집 김효나

원고 고수형, 김지연, 문해주, 박선화, 이다영, 이보은, 임다솔, 정양숙, 허란

도움 박다엘, 변주영

주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본 결과집은 무단전제를 금하며 인용 시 저작자와 출처를 반드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밝은방은 독자적인 미술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발달장애 창작자들과 다양한 예술표현을 시도하며 창작과 소통의 방향을 찾는 창작그룹입니다.

홈페이지 brightworkroom.modoo.at

이메일 brightworkroom@gmail.com

인스타그램 @brightworkroom2018